

### 낙농단지 조성 '불협화음'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사료 공급기반 등을 고려한 낙농단지 조성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일 한·EU FTA 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려 앞으로 이견 조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시화, 지역개발 등으로 낙농가 이전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환경문제 등으로 목장부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낙농단지 조성을 검토하게 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낙농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조사료 재배면적 등을 고려한 적정 사육규모 및 축사시설을 해야 되며, 음용수 및 농업용수의 확보 또는 지하수 개발 가능성, 해당 지역의 기후가 가축 사육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각종 질병 및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성 등 방역여건도 따져보고, 낙농 이외의 한우개량·번식 및 청정종돈장, 양돈번식전문농장 등도 포함할 지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것.

이런 사항을 따져본 후 낙농단지 조성 가능 지역으로 검토해 볼 만한 곳은 새만금, 시화호, 아산만, 화옹 등으로 간척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지역과 떨어진 유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들은 특히 질병 문제를 들며 '단지'를 조성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질병 때문에 '단지'를 조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접근 방법이라며 낙농단지 조성을 위한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원유생산량 줄고 품질은 향상

낙농가수가 7천호가 붕괴되고 원유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원유 품질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회장 강명구)가 최근 발표한 3/4분기 낙농

산업동향을 보면 6월말 현재 낙농가수는 6천874호로 전분기 대비 1.9%가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두수 역시 43만9천200두로 전분기 대비 1.9%가 감소했으나 호당 평균 사육규모는 63.9두로 전년 동기 61.7두에 비해 3.6%가 증가해 규모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었다. 낙농가수 감소와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2/4분기 중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5천931톤으로 나타났다.

2/4분기 누적 원유생산량은 106만6천톤으로 전년 동기 110만7천톤에 비해 3.7%가 줄어들었다. 6월 기준 호당 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한 822kg으로 나타났다.

원유생산량은 감소했지만 품질은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6월 기준 평균 유지방은 3.86%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으나 세균수는 전년 동기보다 ml당 1천개가 증가한 2만2천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세포 1등급 비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중 체세포 1등급 비율은 61.5%로 전년 동기 대비 3.5p 증가했으며 35만 미만 바울(1·2등급)은 무려 91.1%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체세포 1등급 비율이 60% 이하인 58%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1등급 비율은 금년 3월까지 60%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4월부터 60%를 넘어서었다.

한편 낙농품 소비액은 전년 동기대비 13.7% 증가한 2만7천592원으로 나타났으나 원유가 인상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식품 중 낙농품의 비중은 늘어나 낙농품 소비액은 전체 식료품 소비액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낙농가 소득 전년보다 33% 하락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지난해 낙농가들의 소득이 전년 대비 3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회장 강명구)가 최근 발간한 2008년도 낙

농통계연감에 따르면 2008년도 진흥회 소속 낙농가 평균 연소득은 3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도 연간 소득 5천300만원 대비 무려 33%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값 폭등이 소득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원유 기본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소득이 감소한 것은 낙농업이 사료값 등 대외 여건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호당 생산비는 전년대비 28.2%가 증가해 일평균 47만8천원이 소요됐다. 이와 함께 2008년말 현재 낙농가 수는 전년 말 대비 8.6% 감소한 7천호로 최종 집계됐다. 낙농가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호당 생산량은 꾸준히 늘어나 전체 원유 생산량 감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호당 평균 생산량은 835kg으로 전년대비 6.6%가 늘어났으며 이는 2003년도 생산조절제 시행 이후 5년간 총 35.3%가 증가했다.

원유 생산량은 일평균 5천844톤으로 총 생산량은 213만9천톤으로 전년 218만8천톤보다 2.2%가 감소했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내산업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제품 소비도 줄어들었다.

2008년도 유제품 총 소비량은 303만5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1%가 감소했으나 시유소비량은 소폭 늘어났다.

백색시유는 0.8%가 감소한 135만1천톤이었지만 가공시유가 35만1천톤으로 전년대비 4.8%가 늘어나 시유소비를 소폭이나마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유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유제품 소비량은 전년동기 대비 5.1%가 감소한 133만3천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목우촌 육우, 하반기 사업본격화

목우촌육우가 육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하반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사업 본격화가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20일 2009년 제3차 '목우촌 육우' 브랜드관리위원회의를 갖고 브랜드관리와 홍보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목우촌 육우는 지난 2월 27일 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 안성축협과 지리산낙협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 시범 상장이 된 이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주부클럽연합회와 소비자교육원을 대상으로 육우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소비자교육에 참석한 인원은 920명, 육우 농장 견학에 참석한 인원은 405명이며 오는 10월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육우 홍보물 12만부도 제작·배포했다.

브랜드 지원사업(정책사업) 자금은 목우촌 25억원, 조합(안성, 지리산) 15억원이 연리 3%, 3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됐다. 육우자조금도 본격적으로 거출, 올 하반기 7500만원의 홍보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과 소매판매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에 주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합별 소매판매사업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4000만원(개소당 800만원)이 투입되며 목우촌, 안성축협, 대전충남우유, 동진강낙협, 전북지리산낙협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09년 우수축산물 페스티벌에 참가해 목우촌 육우 브랜드 홍보와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소비자 단체 육우 홍보 및 무료 시식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대비한 목우촌 육우 판매 신장을 위해 9월 농수산홍소핑을 통해 목우촌 육우 갈비세트와 정육세트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브랜드에 대한 품질관리와 농가 사양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뉴얼이 작성됨에 따라 브랜드 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브랜드 목표와 관리규약, 사양관리 기술 등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이같은 매뉴얼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목우촌 육우'의 기본적인 브랜드육 조건을 갖춰야만 브랜드육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된다.

매뉴얼에는 우선 브랜드는 △상표 및 특허등록을 완료한 브랜드육을 말하고 △브랜드의 혈통은 홀스타인 수소 및 미경산 젖소로 하며 교잡종 및 새끼를 낳은 젖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브랜드육은 육우 브랜드 전용사양프로그램 및 전용사료를 이용해야 하고 △브랜드는 생후 4개월령 이내 거세를 실시하고, 생후 20개월령 또는 22개월령

이상으로 생체중 700kg 이상 사육 후 출하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된 도축장·육가공공장을 통해 출하하여야 하며 육질 2등급 이상, 육량 A, B등급으로 하고 있다.

### 민간 배합사료업체 가격 2~3%내외 인하

농협사료에 이어 민간배합사료업체도 지난 8월 12~13일 사이에 사료가격을 소폭 인하했다. 사료업계는 최근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인하 요인이 많지 않은 만큼 소폭으로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사별로 인하폭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2~3% 사이에서 가격을 인하했다. 또 농협사료와 마찬가지로 양돈사료 인하폭은 1~1.5%선이며 비육우 사료는 3~5%사이로 인하하기로 했다. 양계 사료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격 인하 폭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양돈 사료의 주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등의 국제 원료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비육우 사료의 원료인 팜박, 아자박 등의 식물성 박류의 가격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업체별로는 (주)카길에그리푸리나의 경우 축종별로 비육 3.8%, 낙농 2.9%, 양돈 1% 인하하기로 했으며 CJ제일제당도 비육 5%, 낙농 3.9%, 양돈 1.5%, 천하제일사료도 비육 5%, 낙농 3.5%, 양돈 1.5% 내렸다. 이와 함께 대한제당, 우성사료, 대성팜스코, 삼양사 등 대다수 배합사료업체들도 각각 3% 내외로 인하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 인하 요인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농가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소폭이나마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전국 원유생산량 2년째 감소세

전국원유생산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의 전국원유생산량에 따르면 2008년 전국 총원유생산량은 110만6934톤으로 2007년 보다 약 2.2%

가량 하락했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의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원유생산량의 감소폭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로 지난 1월 전년 동기대비 3.2%하락한데 이어 매달 평균 3% 이상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경문제,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폐업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착유마리수와 낙농가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젖소 마리당 산유량이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날씨나 사양관리의 영향도 있지만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저급조사료를 급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사이에 고급조사료에 해당하는 티모시와 알팔파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수입조사료 추천실적에 따르면 티모시의 경우 2007년에는 13만5382톤을 수입했으나 이듬해인 2008년에는 7만7733톤으로 수입량이 45%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티모시나 알팔파보다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짚종류인 톨테스큐는 2006년 11만3420톤을 수입하던 것에서 2007년에는 14만7159톤으로 23%가량 늘어났으며 2008년 수입량도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사료 생산량에서도 벗짚 생산량이 늘어났다. 2007년 212만8000톤에서 2008년 231만5000톤으로 8%가량 생산량이 증가한 것. 벗짚생산량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 수입조사료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벗짚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조사료인 티모시의 경우 2006년에 비해 2008년 가격이 63% 이상 오르는 등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싼 조사료를 찾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며 “음식찌꺼기 등 단미사료와 저급조사료 급여를 늘리는 대신 고급조사료 비율을 낮춰 급여하는 동안 젖소들의 기초체력이 저하되면서 두당 산유량도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㉞

(출처 : 축산신문, 농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